

광주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 '황풍년' 임명

예술인과 소통·협력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대
“문화자산·광주공동체 역량 키우는 데 최선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황풍년 신임 대표이사(56)는 순천고, 고려대 불문학부를 졸업하고 전남일보 기자, 광주드림 편집국장, 아시아문화원 이사(비상임)를 지냈으며, 방송인,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왔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년 동안 전라도의 삶과 질박한 언어를 담은 잡지 '전라도닷컴'을 발행하며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광주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데 매진했다.

또 '벼꽃 피는 마을은 아름답다(2010)' '풍년식담(2013)'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2016)' 등 전라도문화의 근원을 책으로 엮어내고, '아름다운 전라도'를 자라대회 '그림속 전라도전' '광주극장과 함께 영화보는 송년회' 등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운동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광주시는 신임 황 대표이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예술인과 소통·협력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대표이사는 “위드 코로나시대에 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데 광주문화재단의 매개와 네트워크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인간존엄과 문화의 양성의 가치를 지켜가는 예술도시, 민주성 주창자가 가진 문화자산과 광주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사회적경제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 영예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을 공모했으며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2개소를 추천했다. 최종 25개소를 심사한 결과 3개 지자체가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서구, 장애아동용 안전교육 책자 발간

광주 서구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진발생 시 대응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 속 지진안전' 안전교육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전교육 책자는 재난(지진)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장애아동이 대피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에 적합하도록 지진개념, 안전한 대피방법을 다양한 색상과 그림을 통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제작됐으며, 학습교재로 활용됨에 따라 선생님과 보호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함께 구성됐으며,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 수업교안과 그림 색칠하기, 스티커 등을 첨부해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대응능력을 익히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서구장애인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남구, 관내 정신건강 증진시설 16곳 지도·점검

광주 남구는 관내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적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관내 병·의원 10곳과 요양 및 재활시설 4곳, 정신건강 위탁시설 2곳 등 관내 정신건강 증진시설 16곳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하반기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비롯해 시설 안전관리 상태, 입원환자 명부 및 퇴원환자 진료 기록 등에 관한 서류 점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현황 및 입원실 현황 등이다.

북구,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효과

광주 북구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1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작 이래 올해 가장 많은 2억 5천만 원을 출연해 246개 업체에 총 43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년 동안 대출이자와 보증료 전액, 2년차에는 이자의 2%를 지원하는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출연, 215개 업체에 37억 5천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광산구, 첨단1동 골목상권 캐릭터 생겼다

광주 광산구가 골목상권 정체성과 성장 동력 확보를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브랜드화 사업'의 하나로 첨단1동상인회에서 사용할 캐릭터 상징물과 상권 그림지도 도안의 제작을 지원했다.

광산구와 상인회가 SNS 이름 공모 등 소통을 거쳐 마련한 첨단1동 상가 캐릭터는 '쌍이'와 '아미다'. 이는 첨단1동 랜드마크인 쌍암공원의 초성인 쌍시옷과 이음을 의인화한 것이다.

두 캐릭터는 외식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이 있는 첨단1동 골목상권을 포괄한다는 의미와 쌍암공원 일대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리는 스토리를 반영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탄생하게 됐다. 광산구는 쌍이와 아미를 선보이며, 신창동 가구거리 '쌍이' '롬이'에 이어 상표출원도 마쳤다.

임형택기자

신민호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2021본예산 인건비 64%육박

학생 수 감소에 비해 인건비 해마다 증가

전남의 학생 수(초·중·고 공사립포함)는 2018년 22만 410명에서 2020년에는 20만 6,680명으로 1만 3,730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576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87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 심

사에서 “전남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70억원 줄여 3조 6,463억원으로 제출했는데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다도 앞으로 5년간 1만 2,85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지역은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전남에는 빨간불인 상황인데 인건비 편성액은 2조 3,307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4% 수준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전남도교육청에 책정한 인건비 내시액은 2조 2,979억 원인데 전남도교육청이 편성한 2021년 인건비는 2조 3,307억 원으로 328억 원 초과편성됐다.”며, “고정지출 증가로 직접 교육비가 감소



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의원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분 재원 마련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하여 전남교육인력관리 전담 재검토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전남도, 정부차원 'SRF 새 협의체 구성' 촉구

'주민과 합의 않은 SRF 가동 중단' 입장문 내

전라남도는 14일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종료되면서 4개 기관이 제안한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특히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SRF 발전소 가동은 해산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5개

주체가 2년의 노력에도 끝내 결렬된 것은 한낱의 과도한 손실보전 범위가 원인이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대체사업 발굴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나주 SRF 문제는 거버넌스 종료 이후,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SRF 발전소를 가동하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라도 가동을 저지하려는 나주시가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나주 혁신도시 시민들도 SRF 가동 저지를 위한 릴레이 민원신청과 차량시위 등을 벌이고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한 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주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의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

산업부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부터 나주 SRF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그동안 손실보전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30일자로 활동을 종료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에서 손실보전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999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1.06
 3. 사업운영기간 : 2021.06~2046.05(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0.10.14.~2020.10.22.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 ilyang00@daum.net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풍성한 미래의 태양광 발전소 1호	임민수	998.8	전남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산67-1, 1019, 1021-2, 1021-5
			16,865㎡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 고소득층 →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합동센터 529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00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형의 안전
보안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과 근무 시간의 여가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천으로 기함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에게서 지면 승용입니다.